

교육부, 학교현장 혁신 본격화 'AI 융합형 교육실' 167억 투입

지원대상 학교 118개교 최종 선정 미래형 융합교육·학습 환경 조성 AI 기반 탐구·문제해결 역량 강화

학생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아이디어를 설계·제작해 실제 문제 해결 방안을 구현하는 교실이 전국 118개 학교에 들어선다. 기존 설명 중심 교실을 넘어 과학·수학·정보 등 여러 교과를 연결하고, 화재 현장 소방차 적용 탐구나 기상재해 취약계층 보호 장치 제작처럼 학생 참여형 프로젝트 수업이 가능한 미래형 학습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2026년 인공지능 융합형 교육실' 지원 대상 학교 118개교를 최종 선정하고, 총 167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 지난달 29일부터 본격적인 구축·운영 지원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에 따라 추진된다.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을 위해 학교 현장에 미래형 융합교육·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교육부는 전국 지원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공간 활용 계획의 구체성, 운영 역량, 융합교육 지속 가능성, 성과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118개교를 선정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5개교, 중학교 32개교, 고등학교 47개교, 특수학교 4개교가 선정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9개교로 가장 많았고 경기 18개교, 경남 11개교, 인천·충남·경북 각 8개교, 전북 7개교 등이 뒤를 이었다.

선정 학교는 2026년 하반기까지 인공지능 융합형 교육실 공간 구축을 마치고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교육실은 교과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융합교육(STEAM) 동아리,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 등과 연계한 학생 참여형 수업에 활용된다.

인공지능 융합형 교육실은 교과별 지식을 따로 배우는 기존 교실 환경에서 벗어나 과학·수학·정보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를 융합·연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탐구, 설계·제작 활동, 협업 기

반 프로젝트 수업 등이 가능하도록 꾸려진다.

공간 모델은 기본형과 확장형으로 나뉜다. 기본형은 교실 1개에서 1.5개 규모로, 교과 수업과 연계한 AI 기반 탐구·문제해결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이 AI를 활용한 탐구 경험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확장형은 교실 2개 이상 규모의 확장형·가변형 공간으로 조성된다. AI를 기반으로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위한 아이디어 도출, 데이터 분석, 최적화 AI 모델 구현, 실증 등 창작·연구 중심 활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학생들이 실제 문제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둔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정 학교가 공간 구축 이후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단계별 운영 상담, 운영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학교별 교육과정과 여건에 맞는 운영 사례를 발굴해 다른 학교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서울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한마당' 운영

'지구를 위한 실천' 주제 마련

서울시교육청은 6월 '생태전환교육 행동의 달'을 맞아 학생·학부모·시민이 참여하는 '2026 서울 생태전환교육 한마당'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행사는 지난 14일부터 7월 11일까지 단위학교와 서울 시내 영화관, 교육지원청별 운영 장소,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환경의 날(6월 5일)을 계기로 6월을 생태전환교육 행동의 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함께하면 가능해! 지구를 위한 실천, 시

작은 오늘부터!'를 주제로 마련됐다.

행사는 학교와 11개 교육지원청, 서울시 광역·기초환경교육센터, 환경분야 기관 및 기업 등이 협력해 추진한다. 서울 초·중·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시민 등이 참여 대상이다.

올해는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체험 중심 프로그램인 '실천마당'을 11개 교육지원청별로 분산 운영한다. 지역의 생태·환경 자원을 활용한 권역별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생활권 인근에서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현진 기자

경희대,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개발

물방울 등 일상 움직임에서 전기 생산

경희대학교 김대원 전자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물방울과 심장박동 등 일상적 움직임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잇달아 개발했다.

1일 경희대에 따르면, 연구팀은 먼저 물방울이 떨어질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하이브리드 발전 소자를 구현했다. 이 기술은 마찰전기 발전기와 자기탄성 발전기를 결합한 구조로, 물방울의 이온 에너지와 낙하 에너지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연구진은 전극 소재로 레이저 가공 불소화 그래핀을 적용해 수분 환경에서 발생하는 부식 문제를 개선했다. 또한 외팔보 구조에서 착안한 탄성 지지체를



김대원 경희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연구팀. /경희대

도입해 반복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의 충격을 전기 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소재 분야 국제학술지인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티리얼즈(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최신 호에 게재됐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한강변에 다목적 국제 경기장 세운다

광장동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 윤곽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1999억 투입

서울시가 광나루역 인근 한강변에 국내 최초의 하이브리드 목구조 다목적 국제경기장을 조성한다. 태권도·유도·레슬링 등 국제대회 개최가 가능한 전문체육 시설에 생활체육과 문화 기능을 결합한 복합체육시설이다. 48년간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던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가 시민 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서울시는 광진구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에 조성할 '광장동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 설계공모 결과, (주)가와종합건축사사무소와 건축사사무소 이색, 디디건축사사무소가 공동 응모한 작품



광장동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 설계공모 당선작 투시도. /서울시

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광장동 401-14 일대 체육시설 부지 5만916㎡ 규모다. 복합체육 시설은 국제 규격의 전문체육시설과 체육 부대시설, 편의시설, 공영·부설주차장 등을 갖춘다. 태권도와 유도, 레슬링 등 투기 종목 국제경기 개최와 선수 훈련이

가능하도록 조성되며, 평상시에는 주민 생활체육과 문화공연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총사업비 1999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당선자와 설계계약 체결 후 약 18개월간 설계를 진행하고, 2028년 4월 착공해 2031년 8월 준공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경제총조사... 사업체 80만곳 대상

경기도가 도내 산업 전반의 고용·생산·사업활동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2025년 기준 경기도 경제총조사'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경기도 내 사업체 80만4315곳으로 전국사업체의 약 24.1%를 차지한다. 전국 사업체 4곳 중 1곳이 경기도에 있는 셈으로, 경기도 산업구조와 경제 규모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조사로 평가된다. 조사는 온라인과 방문면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조사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며, 사업체에 사전 배부된 안내문의 참여번호를 입력해 참여할 수 있다. 방문면접 조사는 6월 12일부터 7월 22일까지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찾아가 진행한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한양사이버대, 2학기 신·편입생 모집

내달 16일까지 원서 접수

한양대학교가 설립한 사이버대학교인 한양사이버대학교(총장 이기정)가 1일부터 2026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원서 접수는 7월 16일 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

한양사이버대는 학사과정 39개 학과와 석사·박사과정 2개 대학원 9개 전공을 운

영하고 있다.

2026학년도 2학기 학부 신입학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이상이다. 편입학은 전문대 졸업자나 4년제 대학에서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전형은 수능 성적이나 내신 등급을 반영하지 않고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학업수행검사로 진행된다.

/이현진 기자

한양사이버대는 직장인, 주부, 만학도, 소상공인 등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내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득 연계형 국가장학금과 교내 장학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학생의 실제 등록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학부 모집과 별도로 한양사이버대학원은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정원 내 일반전형 모집 인원은 석사과정 69명, 박사과정 50명이다.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2 | 해질 / 19:48

6월 2일 (화)
음력 : 4월 17일

수도권 날씨
19~33°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지역별 날씨: 연천 14/31, 동두천 16/32, 가평 15/32, 파주 14/31, 서울 19/33, 양평 17/32, 인천 17/32, 수원 19/32, 용인 19/32, 평택 18/32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美, 휴전협상 난항 중 이란 공습... 이란 "미군 기지 보복 타격"
▲ 美, 이스라엘-헤즈볼라에 중재안 제시... 양측 군사행동 중단 요구



▲ 우크라 젤렌스키 "美 특사단 2주안에 키이우 방문할 수 있어"
▲ 엔비디아 젠슨황 CEO, 4일 방한... 주요 기업 총수와 회담 진행

▲ 中, 美 AI칩 수십만 개 우회 수입... 美 뒤늦은 수출 차단 조치
▲ 日 다카키치 지지율 66%... 청년·무당층 지지 후퇴에 소폭 하락